

FINA “광주 세계수영대회 준비 부족맨 취소”

〈국제수영연맹〉

정부에 예산·조직위 사무총장 인선 등 보증 요구 최후 통첩 개최 못하면 300억 비용 날리고 국제 신인도 추락 불보듯

국제수영연맹(FINA)이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예산지원과 조직위 사무총장 임명 등 4가지 조건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대회를 취소할 수 있다고 최후 통첩을 보냈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코넬 마르클레스쿠 FINA 사무총장은 지난달 24일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장관과 김중 차관에게 서신을 보냈다. 참조인으로는 윤정현 광주시장도 포함됐다.

FINA는 서신을 통해 한국 정부가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예산과 마케팅 및 홍보 계획, 경기시설 확충, 경험과 능력을 갖

춘 조직위 사무총장 임명 등을 즉각적으로 보증할 것을 요구했다.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한국수영연맹, 광주시의 개최 역량에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개최 취소 등 내용을 담은 개최도시 협약 조항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경고도 담았다.

이 경우 광주시는 이미 지급한 개최권료 89억원, 보증금 명목의 비용 24억원, 위약금 500만 달러, 삼성이 지급하기로 한 개최권료 1000만달러 등 300억원 가까운 비용을 허공에 날리게 된다. 국제적인 신인

도 추락은 거론할 필요도 없다.

관례상 10일 이내 회신을 해야 하지만 문체부와 시는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이번 통첩은 조직위 사무총장 인선에서 나온 잡음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FINA는 서신에서 지난달 19일 핵심 인사(key person)인 사무총장 없이 조직위를 출범시킨 데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김윤석 2015 유니버시아드 조직위 사무총장을 수영대회 조직위 사무총장으로 내정해 문체부의 동의까지 받았다가 백지화해 논란을 자초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시수영대회지원단 예산 결산승인 회의에서 사무총장 공석 배경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조소섭 의원은 FINA로부터 온 서신 공개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사실을 소개하며 “대회 준비과정에서 설도, 무도도 너무 많다”고 불투명한 행정을 질타했다.

주경민 의원은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전력을 쏟아도 모자랄 중대한 시기에 가장 기초적인 준비절차인 조직위 재단법인 설립등기마저도 미뤄지고 있다”며 “사무총장 인선의 결정권을 쥔 시장이 신속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김종호 기획조정실장은 “FINA에서는 조직위가 예정보다 늦게 발족된 점, 정부의 개최 지원 의지를 의심하고 있지만, 시는 문체부와 FINA와 협의해서 그런 의심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뉴스&정보 브리핑

결핵 환자 다음달부터 무료 치료 받는다

다음 달부터 결핵 환자는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결핵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금도 결핵 환자는 일반환자와는 달리 특례 제도를 적용받아 외래나 입원치료를 받을 때 비급여를 제외한 건강보험 치료비의 10%만 본인부담금으로 내면 된다.

개정안은 현재 결핵 환자가 10%를 내도록 한 본인부담금도 이에 내지 않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 결핵 환자는 줄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견줘 월등히 높다.

광주 청년 10명중 9명 ‘진로·적성 고민’

광주에 사는 청년 10명 중 9명가량이 진로와 적성에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명 가량은 진로·적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광주시 청년위원회가 최근 지역내 청년(19~39세) 619명을 대상으로 진로와 적성 실태조사를 한 결과 88.1% (545명)가 진로·적성에 고민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고민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2%에 그쳤다.

진로·적성 형성 시기에 대해 54.1%가 중·고교를 들었다.

대학교와 성인때도 3명 중 1명 꼴인 33.4%가 진로적성을 고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남 인구감소 대비 외곽 택지개발 자제해야

광전연 ‘리더스 인포’서 제안 “압축도시로 공간 재편해야”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광주와 전남 주요도시들의 무분별한 외곽 택지개발과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전남연구원 조상필 선임연구원과 신동훈 책임연구원은 ‘광전 리더스 인포’ 제8호 ‘인구감소시대, 압축형(Compact) 도시정책 필요성 제안 - 일본 도야마시 압축도시 개발사례-’에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과 문화·의료 등 필수시설을 일정 공간에 집약해 주민 편의를 높이는 압축도시(Compact City)로 도시공간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와 전남 각 시·군이 인구 고령화 및 감소 등으로 주거 수요가 급감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과 아파트 단지 조성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다.

조 선임연구원 등은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구도심의 재생을 위해 시·군·구청장, 동·읍·면사무소 등 공공시설의 재배치도 제시했다.

조 선임연구원은 “전남지역의 고령 인구 증가와 젊은 인구 감소로 중소도시들의 지역활력이 저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면적은 연평균 2.19%씩 증가해 시가지의 면적이 평면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시가지 저밀도화, 행정비용 상승 등의 현안과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교통을 축으로 하는 거점집중형 압축도시를 추진한 일본 도야마시 압축도시 개발 사례를 들어 지역차원의 해법을 제시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산동고 아래서 6·25 전투 재현. 8일 광주시 북구 동림동 옛 산동고 아래에서 ‘1950. 광주의 그날!’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1회 산동고 재현행사’에서 배우들이 1950년 6·25전쟁 당시 인민군과의 전투를 보여주고 있다. 산동고는 6·25전쟁 당시 군경합동부대가 인민군의 광주 점령을 막기 위해 첫 전투를 벌였던 광주지역 유일의 6·25전적지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상무지구 물순환 개선지구 선정 200억 받는다

환경부 선도도시 공모서 1위 빗물 땅속 들어가 증발 유도

광주의 대표적 신도시인 상무지구가 물순환 선도도시 개선사업지구로 선정됐다.

광주시는 도심 물순환 체계 회복을 위해 환경부가 실시한 ‘물순환 선도도시 공모’에서 1위로 선정돼 국비 200억원을 지원받는다.

이 사업은 도시화로 빗물이 그대로 하수관을 통해 일시에 하천으로 빠져나가는 것

을 막아 도심 물순환 체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도심속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 불투수면(不透水面) 증가는 가뭄·홍수, 지하수 고갈, 하천건전화, 수질·수생생태계 악화 등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앞으로 상무지구는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기법을 통해 빗물이 땅속에 들어가 저류하거나 증발을 유도해 물순환을 회복하게 된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도시 빗물 분산 관리를 위해 저영향개발 기법을

적극 도입해 수질 개선, 빗물 유출 저감, 열섬 완화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국비 등 모두 295억원이 투입돼 내년부턴 2020년까지 추진한다.

광주시는 또한 물순환 체계 개선사업을 도심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행자 도로는 물이 스며드는 투수블록으로 교체하고 광장 등에는 식생제유지를 조성한다.

학교나 관공서 옥상 등에는 녹화사업을 하고 가로수는 나무여과상자에 심는다.

주변 시설과 어우러지는 자연친화적인

주인 휴식공간과 편의시설도 조성한다.

광주시는 앞으로 건축, 도시계획, 공원 등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 민간사업에도 저영향개발을 확대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인구 10만명 이상의 대도시 74곳을 대상으로 물순환 선도도시를 공모해 광주시를 비롯해 울산, 대전 등 5곳을 선정했다.

박영석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광주전 수질개선과 더불어 노후된 공공시설을 정비해 개발된 지 20년이 된 상무지구의 미관 개선과 기반시설 정비 효과까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 해양 쓰레기, 육지 생활 쓰레기가 60% 차지

전남에 해양쓰레기가 넘쳐나고 있다.

지난 한 해 해양쓰레기 1만4000여이 수거된 가운데 수거되지 않고 해안에 방치되거나 바다로 침적되는 쓰레기는 수만 t에 이를 것이라 추정까지 나오고 있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해 일선 자치단체와 함께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1만4505t이다. 자치단체별로는 신안군이 2151t으로 가장 많고, 해남군(1877t), 여수시(1830t), 완도군(1771t), 보성군(1507t), 진도군(1500t), 고흥군(1135t) 등이 1000t을 넘었다.

이와 관련, 광주전남연구원 전신인 전남발전연구원은 2012년 전남에서 해양쓰레기가 3만8000t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도 관계자는 “해양쓰레기를 정확히 추산하기는 과학적으로 어렵다”며 “태풍, 홍수, 해일, 호우 등을 통해 해상으로 유입되는 육지 생활 쓰레기가 60%, 어선 어업과 수산양식장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35% 차지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

이와 관련, 광주전남연구원 전신인 전남발전연구원은 2012년 전남에서 해양쓰레기가 3만8000t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도 관계자는 “해양쓰레기를 정확히 추산하기는 과학적으로 어렵다”며 “태풍, 홍수, 해일, 호우 등을 통해 해상으로 유입되는 육지 생활 쓰레기가 60%, 어선 어업과 수산양식장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35% 차지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

스마일 수술

(Small Incision Lenticule Extraction)

라식·라섹의 단점은 최소화! 장점은 극대화 한 시력교정수술

- 신경손상이 적어 안구건조증 감소
- 각막을 열지 않아 외부충격에 더 안전
- 우수한 시력 예측, 시력예측도 가장 우수

- 뒤어난 회복속도 빠른 일상생활 가능
- 만족스러운 결과, 1.0 이상 90% 시력유지
- 더욱 또렷하고 선명한 시력교정!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역: 스마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양막 / 눈성형 / 노안

백운광주안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60406-중-81650호
www.sejonghospi.com

치료중점·어르신 중점진료 인공신장실, 전문재활치료실

전문 재활치료실 운영

운동/직업/통증치료실 운영

진료분야

중추신경계
-뇌신경계: 뇌출혈, 뇌경색, 외상성뇌손상, 뇌종양
-척수신경계: 외상성척수손상, 척수종양, 척수염

근골격계
-수술 후 회복 재활: 인공관절치환술, 골절, 인대손상
-통증재활: 스포츠손상, 관절염, 근육손상, 근막통증후군

세종요양병원은 수술 후 재활, 뇌졸중, 요양, 암, 치매, 인공신장실, 집중치료실 등
요양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분을 위해 마음까지 치유하겠습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남 두 현 원장

세종요양병원

▲전남대병원에서 광주전편 방향

장기요양·수술후 재활·암케어병동·치매·중풍·집중치료실·인공신장실
대표전화 (062)236-5200
의사·한의사 협력 진료 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금동 211-10)